

국어 교과서 연구의 현황과 반성*

정혜승**

〈차 례〉

- I. 서론
- II. 교과서 체제에 대한 연구
- III. 교과서의 내용 분석 및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 IV. 교과서 체제에 대한 연구
- V. 교과서 사용에 대한 연구
- VI.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
- VII. 결론

I. 서론

이 연구는 그간 국어 교육학계에서 이루어진 교과서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과서 연구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연구의 범위 및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 자료로 취급되어 왔다. 대다수의 교사가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실 수업의 대부분이 교과서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미국 교실의 수업 상황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KRF-2001-005-C00018)

**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을 분석한 Gall(1981 : 10)에 의하면 전 수업 시간의 90~95%가 교과서를 이용하는 데 소비되고 있고, 미국 초등학교 5학년생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을 분석한 Marsh(1992 : 59)에 의하면 전 수업 시간의 78%가 교과서를 사용하는 시간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도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가장 일반적인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Westbury(1991 : 74)가 교육과 교육과정의 발전이 교과서 집필과 선택에 좌우된다고 주장한 것도 교육에서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과 같이 교과서 의존도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우리 나라 교실에서의 교과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 나라 교육이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동일시하는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과서의 위치는 절대적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볼 필요도, 알 필요도 없이 단지 주어진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왔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자료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아직도 많은 교사에게 교과서는 유일한 교재로 인식되고 있다.

교과서가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Boostrom(2001)은 미국에서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소홀한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학자들의 학문적 무관심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교과서가 학문적 성과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 자체 고유한 학문적 노력을 기울일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별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이 설계되는 방식대로 교과서가 만들어지리라는 믿음이 교과서를 별개의 연구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게 한다. 셋째, 상업적인 출판사에서 개발된 교재를 학교에서 채택하여 쓰는 미국 학교 체제에도 원인이 있다. 출판사는 교

과서 자체의 질적 개선보다는 학교에서의 채택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때문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에 비해 교과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국어과의 경우 국어 교과서와 관련된 단행본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교과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미흡한 수준이지만, 그간에 이루어진 교과서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Boostrom(2001 : 229-230)에 의하면, 미국에서 교과서 연구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주로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 교과별로 교과서가 사용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 둘째, 교과서 채택에 미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 셋째, 교과서가 수업을 속박하고, 교과 내용을 제한하는 기제에 대한 연구, 넷째, 교과서가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가정(assumption)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첫 번째 교과별로 교과서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예컨대 미국 중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수학, 역사 교과서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과서 및 교과서 사용 방식에 교과적 특수성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Sosniak & Perlman(1990)에 따르면 학생들이 영어 교과서를 공부하는 방식은 수학이나 역사 교과서를 공부하는 방식과 다르다. 영어 교과서에는 문학 교과서(literature anthologies)와 문법 교과서(grammar book)가 포함되는데, 이 둘은 그 자체로 완결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그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볼 필요가 없으며, 교사의 관여 없이 학생 스스로 교과서 내용과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¹⁾ 문학n

1) 문학 교과서와 문법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도 차이가 있었다. 몇몇 학생들은 문학 교과서가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문학 교과서를 지루해 하고, 그것을 학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학생들의 반응을 예로 들면, 'All of the stories are boring. As long as I've been here, that's the way it's always

과서의 경우 학생들은 작품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공부하고, 읽은 내용에 대한 사실적 회상을 요구하는 교과서의 질문에 답을 한다. 반면 수학 교과서는 교사가 교과서의 문제를 칠판에 적어주고, 풀어주고, 변형된 문제를 과제로 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 교과서를 대면하는 일이 적다. 역사 교과서는 문학 교과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교과서에 대한 태도와 이용 방식 및 학습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다시 교과서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는 학교 제도에 비판적인 이론가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교과서가 미치는 정치적, 이념적, 인종적, 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국 교과서 연구의 주된 주제가 되었다. 예컨대 M. W. Apple과 같은 학자는 교과서에 제시된 지식이 '과연 누구의 지식인가?'와 같은 문제 제기를 통해 교과서 채택 과정에 내재한 불평등 문제를 거론한다.(Lockwood, 1992 : 5) 미국이 다민족 사회이고, 인종 사이, 계층 사이의 갈등이 중요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과 채택 과정에 내재한 불평등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Venezky, 1992)

세 번째 연구는 교과서가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방식과 관련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주로 교과서를 비판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사가 교과서에 의존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인 학습을 방해한다는 교실 관찰 연구(Ravitch 1985, Elliot & Woodward 1990)와 교과서가 교과 지식과 교육과정 내용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하는 사례를 분석한 연구(Beck, McKeown & Gromoll 1989, Freeman et al. 1983, Doyle 1992)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 교과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수업 및 교육과정, 교과 지식과 관

been.' Reading stories and answering questions isn't going to help me in the future.') 반면 문법 교과서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예를 들면, 'I like the grammar] book more cause I feel I'm learning...how to write them [sentencescorrectly.')]을 보였다.(Sosniak & Perlman, 1990 : 429)

련하여 실증적으로 찾아냈다는 점, 연구 성과를 교과서 개선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네 번째 연구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의도와 정신을 반영하는 방식과 교과서가 교수·학습 도구로서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이다. 전자에는 교과서를 교육과정의 내용물로 간주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교과서와 표면적 교육과정 및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속한다. 후자에는 Calfee & Chambliss(1987)처럼 교과서 내용 배열 방식, 표현 방식, 문제, 연습, 비유, 도식, 수업 안내와 같이 교수·학습을 안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Venezky, 1992 : 438) 앞의 세 연구들이 교과서 자체보다는 교과서 사용, 교과서와 교육 내·외적 요인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네 번째 연구는 교과서 체제 및 구성과 관련된 교과서 자체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Boostrom이 정리한 미국 교과서 연구의 동향은 우리 나라 국어 교과서의 흐름을 조망하는 틀로서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Boostrom의 연구가 국어 교과서만이 아닌 전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 현실이 미국과 우리 나라가 여러 점에서 상이한 점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범주화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어 교과서 연구의 범위를 교과서의 형식, 내용, 사용, 개발로 범주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교과서의 형식은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로 표현되고, 내용은 다시 구체적인 단원 학습 내용과 글 제재로 구성되므로, 교과서 연구는 1) 교과서 체제에 대한 연구, 2) 교과서의 내용 분석 및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3) 교과서 제재에 대한 연구, 4) 교과서 사용에 대한 연구, 5)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로 범주화할 수 있다.

연구자는 지금까지 국어 교육학계에서 이루어져 온 교과서 연구를 이상 다섯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향후 교과서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²⁾

II. 교과서 체제에 대한 연구

교과서는 여러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원 구성 방식은 한 단원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기제에 의해 묶여져 있는지, 각각의 단원이 어떤 관계로 배열되었는가와 관련된다. 하나의 단원을 하나의 통일된 단원으로 묶는 방식, 그리고 이들 단원과 단원이 배열되는 방식이 바로 단원 구성 방식이다. 전통적으로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에는 목표 중심, 문종 중심, 제재 중심의 구성 방식이 있다.

단원 구성 체제는 단원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요소들의 배열 순서로, 교수·학습 내용을 전개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 학습 방법이 달라지고 학습 효과가 달라진다. 즉, 단원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그 요소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그 요소들을 어떤 원리에 의해 배열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도한 학습 내용의 실행 정도와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과 단원 구성 체제가 내적 체제라면, 교과서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인으로서 외적 체제³⁾가 있다. 외적 체제란 판형, 글자 크기, 글자 및 낱말 사이의 간격, 글줄 길이와 글줄 사이의 띄기, 지질, 두께, 삽화 및 색도, 여백 처리 등을 말한다.(정찬섭 외, 1993)

교과서 체제에 대한 연구는 이상에서 언급한 내적 체제에 대한 연구와 외적 체제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전반적인 단원 구성 방식과 구성 체제에 대한 연구를 보면, 손연자(1993)에서는 5차 초등학교 교과서의 체제를, 최현숙(1996)에서는 4-6차 중학교 교과서 체제를 시기별로 분석하였고, 김지은(1997)에서는 5, 6차 중학교 교과서의 체제를 비교·분석하였다. 김영대(1999)와

2) 이 연구에서 다룬 기존 교과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발표된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하되,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일부 포함하였다.

3) 외적 체제는 '체재(體裁)'라고도 하는데(정찬섭 외, 1993), '체제(體制)'와 '체재(體裁)'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외적 체제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김지연(2000)에서는 모두 6차 중학교 교과서의 체제를, 최가진(2001)에서는 6차 고등학교 교과서의 체제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과 단원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과서 체제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교과서 체제가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점, 영역별 구성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 단원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교과서 체제에 대한 평면적 기술과 당위론적 비판에 머물고, 교과서 체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교과서 체제 연구 가운데는 학습 활동이나 질문과 같은 단원 구성의 중요한 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다. 김정자(1974)에서는 2, 3차 초등학교 교과서의 '공부할 문제'를 분석하여 학습 내용을 점검하였고, 김잔디(1999)에서는 6차 고등학교 교과서의 시 단원 '학습 활동'을 분석하였다. 박형준(2001), 박상희(2001)에서는 6차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 활동'을, 서봉수(2001)에서는 7차 중학교 읽기 단원의 '학습 활동'을 분석하였다. 김남덕(1999)에서는 6차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의 질문의 수준과 위치를 분석하였다. 조형주(2001)에서는 교과서에 삽입된 질문이 학습자에게 인지과정을 안내하는 단서 체계이며, 교과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상황에서의 전이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6, 7차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질문을 위치, 특성, 유형, 목적, 수준, 빈도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비교 결과 6차 교과서보다 7차 교과서의 질문이 질문 구성 방식이나 수준 면에서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각 질문의 기능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연구는 단원의 핵심적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학습 활동과 질문이 단원 학습 목표와 부합하는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원

론 수준의 비판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이들 연구는 문헌 연구에 치우쳐 연구의 의의가 반감된다. 학습 활동과 질문의 경우 교사와 학생이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교사가 이들을 사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학생들이 이들을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과서의 다른 구성 요소도 마찬가지이지만, 학습 활동과 질문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것의 적절성과 의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항 분석 수준의 문헌 연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적 체제에 대한 연구는 다시 교과서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삽화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찬섭 외(1993)에서는 교과서의 외적 체제를 이독성(readability)과 관련지어 논의하고, 심리학 적 실험을 통해 과학적인 편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편집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태숙(2000)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이독성 실험을 통해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교과서 판형을 4×6배판으로, 글자 크기는 11.5 포인트로, 글 자체는 굴림체로, 삽화는 본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짓을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이외에 외적 체제 연구의 대부분은 교과서 삽화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 제재로 사용된 동화나 동시의 삽화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박진숙(1981), 최영중(1988), 홍승화(1994), 김효숙(2001)은 주로 산업디자인이나 미술 전공자에 의해 삽화의 기법이나 형식 위주로 연구된 것이다. 예컨대 초등학교 4-6학년 1, 2학기 교과서의 삽화를 분석한 김효숙(2001)에 의하면 해당 교과서 전체 면수의 60% 이상이 삽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삽화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표현 기법도 매우 단조로우며, 핵심 내용의 학습을 도와주는 기능보다는 그림을 위한 그림의 수준에 머무는 삽화가 많다고 비판하였다. 이들 삽화 전문가에 의한 비판적 분석은 교과서 삽화의 질적 개선을 위해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삽화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어과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삽화의 위치와 기능, 삽화가 글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 삽화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삽화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과서 체제라고 분류하기 어렵지만, 교과서의 표현과 관련하여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 한자, 문장, 문단, 띄어쓰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다. 특히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의 빈도를 분석하고 분류한 연구는 2차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를 조사한 김명식(1970) 이후로 6차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의 어휘를 분류한 진태경(2002)에 이르기까지 약 30편 가까이 된다.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 주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의 빈도수를 조사하여, 그 특징을 유형화하고 있다. 교과서 어휘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특징 분석, 고유어와 한자어를 포함한 외래어의 비율 분석, 교육과정기별로 교과서 수록 어휘의 변화 분석, 유의어 분류 등이 그 예이다. 예를 들어 진태경(2002)에서는 6차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의 어휘를 음운, 형태,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음운 분석에서는 어두(語頭) 초성(初聲) 없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ㄱ, ㅅ, ㅆ'의 순이며, 두음법칙의 영향으로 'ㄹ'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는 결론을, 형태 분석에서는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의 품사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조어별로는 단일어, 어종 분포에서는 한자어 빈도가 높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으나, 연구 결과에서 교육적 의미를 찾기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어휘의 빈도나, 비율을 고려하기 어렵고, 또 연구 결과가 교과서가 아닌 다른 텍스트의 연구 결과와 변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교과서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교과서 사용 어휘에 대한 분석 연구는 교과서 개발이나 활용 방안 제시에 시사하는 바가 적다고 하겠다.

교과서의 표현과 관련하여 교과서 띄어쓰기 실태 분석, 문장이나 문단에 대한 분석 연구도 수행되었다. 김규경(1996)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띄어쓰기를 분석한 연구이다. 나효순(1986)에서는 중학교 교과서 논설문의 문장 구조를 분석하였고, 지성환(1989)에서는 고등학교 논설문의 문장을 분석하여 비문을 찾고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춘영(1990), 김병기(1992)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문장에 대한 비판에 대한 연구이다. 배동진(1995)의 경우 6차 초등학교 교과서 문장을 분석한 연구인데, 문장 구성상 문맥이 통하지 않는 경우, 주장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모호하게 해석되는 경우, 문장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여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 등의 문장을 예를 들어 지적하였다.

이정숙(1993)과 김재우(1999)는 각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단을 분석한 연구이다. 예컨대 김재우(1999)에서는 6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문단 60개를 선정하여 '일반-특수', '의견-이유', '원인-결과', '비교·대조', '묘사', '서사'의 6개로 구조를 분류하고, 이들 문단을 통일성, 연계성, 경제성, 명료성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를 시도하였다. 평가 결과 통일성과 연결성을 갖춘 문단은 70% 정도, 경제성과 명료성을 갖춘 문단은 60% 이하로 교과서 문단이 하나의 생각의 단위로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단의 네 조건을 만족한 문단은 50%가 넘으며, 네 조건 중 하나도 만족하지 않은 문단이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교과서 문단 구성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교과서의 문장, 문단 및 띄어쓰기와 같은 표현과 관련된 연구는 바른 문장과 문단 사용의 전범을 보여야 하는 국어 교과서의 특성상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교과서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읽기 자료이고, 쓰기에 전범이 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표현 면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청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이상 국어 교과서의 체제 및 표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가 교과서 연구 가운데 양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과서 체제 및 표현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교과서 자체에 대한 분석과 비판으로 일관하여 교수·학습과의 관련성, 교사와 학생 등 사용자에 대한 고려, 학습 상황과의 연계성 등의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

교과서 체제, 특히 단원 구성 방식과 단원 구성 체제와 같은 내적 체제에 대한 연구는 교과서 개발 및 교수·학습에의 활용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것의 효과성 및 실제 사용되는 양상에 대한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에는 목표 중심, 문종 중심, 제재 중심의 방식이 있다. 기존의 연구는 교과서가 어떤 방식에 의해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체제상, 논리상의 문제점을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방식의 효과성을 실제 교수·학습 장면에서 검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일한 교육 내용에 대해 구성 방식을 달리하여 교과서 단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수업 상황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교과서 체제에 대한 논의하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Ⅲ. 교과서의 내용 분석 및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교사에게는 가르칠 내용을, 학생들에게는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교과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교과서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가운데 하나라는 교재관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과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내용 제공 및 재해석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진술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세분화하는 기

능을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추상적인 내용을 교수·학습 자료화 함으로써 교사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는 재해석의 기능을 한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답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기본적인 기능 차이이다. 교육과정은 교과 내용에 대한 기본 계획 제공을, 교과서는 구체적인 학습 자료의 제공을 일차적인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기능의 차이가 추상성과 구체성이라는 차이를 수반한다. 또 다른 이유는 교과서 개발자의 특성에 있다. 즉, 교과서 개발자가 자신의 국어 교육관, 교재관, 학습관, 학생관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해석하여 교과서를 개발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정혜승, 2002 : 58-59)

교과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수·학습 자료로서 교과서에 담긴 내용 자체를 분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서 내용을 교육과정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한 것이다.

전자의 연구로는 정은미(1991), 이원섭(2001), 허정연(2002)을 들 수 있다. 정은미(1991)에서는 5차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쓰기 단원을 분석하였는데, 어휘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쓰기 단원이 기초 작문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원섭(2001)에서는 6차 중학교 1-3학년 교과서의 문법 단원을 분석하였는데, 예컨대 문장 구성 단위에서는 계층적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 보어에 대한 내용, 독립어와 접속어에 대한 내용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허정연(2002)에서는 7차 중학교 『생활 국어』 교과서의 문법 단원을 분석하여, 상위 내용과 하위 내용의 불일치, 불필요한 학습 요소 포함, 부적절하고 어려운 보기의 사용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들 연구는 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적절성, 타당성, 논리성 등을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라는 점에서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준거로 하여 개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

육과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서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그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후자의 연구로는 이화용(1989), 박기호(1989), 서희선(1996), 윤영희(1997), 이관규(1997a, b) 등이 있다. 이화용(1989)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의 연관성을 제 4·5차 교육과정과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교과서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체제나 방법상의 변화가 아닌 소재나 작가, 학년 간 순서의 이동과 같이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을 뿐이어서,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 교과서가 일관되게 제시되지 못하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대로,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존재하여 이것을 연결지어 바람직한 국어과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기호(1989)는 독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를 연구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국어과 교육과정에 선정, 조직된 독서 교육 내용이 교과서 독서 단원의 도입 부분에 반 정도가 재배치되었으나 상세화가 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단원 연습 문제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현대 수사학으로부터 기본 개념과 원리가 확인되지 않은 채 독서 교육 내용이 선정되고, 무원칙하게 선정된 개념들이 교육 내용 조직 원리와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교육과정 내용으로 재배치되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 내용이 교과서 단원을 조직할 때 기초로 활용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았다.

서희선(1996), 윤영희(1997)에서는 각기 6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를 중학교 1, 2학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고 실현되었나에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계획적인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과 밀접한 교과서 편찬, 국어 교사 자질의 함양의 세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이관규(1997a, b)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을 비교적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방법이 국어 교과서에 어느 정도로 구현되었는지를 외형상 상관성과 내

용상 상관성으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으나,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상관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내용'이 교과서 단원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을 교과서 단원 제목이나, 목표, 체제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⁴⁾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해당 교육과정 내용을 어느 정도의 폭과 깊이로, 그리고 그것을 어떤 교수·학습 방법에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정혜승(2002)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를 형식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안이 선언적 수준에서 이루어져 구체성과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비판을 하면서, 보다 미시적으로 교육과정 내용⁵⁾이 교과서 단원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에 반영된 정도와 방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양상을 체계화하였다.

요컨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 체제상 교

4) 연구자는 분석의 대상이 된 6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가 '단원의 길잡이 - 본문 - 학습 활동 - 단원의 마무리'의 체제로 구성됨으로써 교육과정이 의도한 바대로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관규, 1997b : 916-917) 그러나 교과서가 실제로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이 절차적으로 잘 풀어져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6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말하기·듣기 단원은 '단원의 길잡이'와 '본문'에서 말하고 듣는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식(원리와 절차)을 제시하고, 바로 '학습 활동'에서 "~을 말해(들어) 보자."식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말하고 듣는 데 필요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습 활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시범을 보이고, 예를 들어주고,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교사의 지식 위주의 설명이 줄고 학생들의 실제적인 활동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외형적 측면에서 교과서의 체제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그 안의 학습 과정이 체계화되었다거나 학습자 중심이라거나 하는 식의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본다.

5) 이 때 교육과정 내용은 영역별로 제시된 '학년별 내용'을 지칭한다.

육과정과의 관련성 속에서 교육과정 내용의 반영의 충실도, 반영 방식의 적합성을 분석·평가하고, 교과서 내용 자체에 대한 내적인 적합성과 논리성, 적절성, 체계성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IV. 교과서 제재에 대한 연구

교과서 단원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글 자료, 제재이다. 제재가 단원 학습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동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읽기와 문학 영역 단원의 경우 제재가 단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는 물론 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가 수록된 제재의 성격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⁶⁾ 이와 같은 사실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재미있게 느끼고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제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교과서 제재에 대한 연구는 기존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의 성격에 대한 분석, 제재의 주제 및 가치관에 대한 분석, 제재 선정의 기준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존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의 성격에 대한 분석은 주로 갈래별로 이루어졌다. 즉, 시(조영숙 1976, 임문혁 1988, 차일룡 1991, 박성규 1997, 이정민 1998, 전미라 1999, 나재환 2000), 소설(유근원 1993, 임입자 1998, 정종록 1999, 위남준 2000, 박종혁 2000, 임덕연 2001), 설화(김원수 1981, 정인관 1988, 김미 1998), 수필(조재수 1986, 홍은표 1995), 희곡(김원모 1987, 오병진 1989, 김명숙

6) 정혜승(2002 : 321)에서는 7차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읽기 단원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 단원을 재미있게 공부했는가?'라는 설문을 하였다. 설문 결과 긍정적인 대답을 한 학생은 전체 35명 가운데 24명이었고, 나머지는 '별로', '모르겠음', '재미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미있는 이유로는 "선생님이 재미있으셔서"와 같은 응답도 있었으나 소수였고,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어서", "실린 글들이 흥미로워서"와 같이 소단원 제재로 쓰인 글 내용에 대한 흥미가 가장 많았다.

1991, 장순정 2000), 설명문(권성화 1987, 조하식 1990)에 대한 분석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구조적·형식적 특성을 분석·비평하거나 작품 구성 요소-인물, 사건, 갈등 양상, 시점 등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런 연구는 제재의 텍스트로서의 적합성과 예술성, 완결성을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과서 평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제재는 그 자체가 예술적 가치나 교육적 목적, 의미를 지녀서라기보다는 단원 학습 목표를 실현하기에 적합하거나, 학습 활동을 구성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을 취하는 교과서의 경우 단원 학습 목표와의 관련성은 제재 선정의 핵심이다. 따라서 제재에 대한 분석 연구는 제재를 하나의 독립된 텍스트로서 분석·비평하는 연구와 함께 교육과정 내용과의 관련성, 단원 학습 목표의 실현에의 적합성, 학습 활동과의 연계성, 학습자 수준에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교과서 구성 요소로서의 기능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재의 주제와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제재의 주제를 유형화하고, 제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분석이 중심을 이룬다. 이들 연구는 제재의 잠재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남희(1998)에서는 6차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의 주제와 가치관을 분석하여, 교과서 수록 작품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가치관을, 사회 지향보다는 개인 지향의 가치관을, 인간보다는 자연 지향의 가치관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나경인(1999)에서는 6차 중학교 교과서 제재의 주제를 분석하고, 이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재 내용 8가지-도덕 교육, 환경 교육, 보건·안전 교육, 경제 교육, 진로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통일 교육, 성 교육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제재의 내용 중 도덕 교육이 43개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환경 교육이 26개, 경제 교육이 12개, 보건·안전 교육, 지로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이 각 10개씩, 성교육이 5개, 통일 교육이 2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세영(2001)에서는 6차 초

등학교 3-6학년 읽기 교과서의 서사 문학 작품 및 희곡 작품 39편을 대상으로 주제를 분석하여, 교훈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87.2%, 심미적인 면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은 12.8%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제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것을 보면, '지혜, 슬기'를 다룬 작품이 7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동물, 자연, 인간애', '과욕', '본분', '희생, 봉사', '근면, 성실'을 다룬 작품이 각 5편, '효도', '신념'이 각 3편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5차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위인을 분석한 김민전(1989)에서는 왕을 비롯한 군인, 학자 집단이 역사 발전의 주체로서 위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순종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에 충실한 여자 위인을 소개함으로써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데 국어 교과서가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보면 교과서에는 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교훈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이 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교과서 수록 제재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제재의 주제가 편향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교과서 수록 제재의 주제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교육적으로 어떤 처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해야 연구가 보다 실제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셋째, 제재 선정의 기준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 관련 연구가 있다. 우찬순(1997), 이미숙(2000), 정지호(2001), 박미진(2002)에서는 문학 제재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선정 기준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예컨대 우찬순(1997)에서는 6차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작품을 분석하여,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게 너무 쉽거나 어려운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작품 가운데는 소설 텍스트로서 기본적인 구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 있으며, 현실감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박미진(2002)에서는 환상성과 사실성, 주제와 교육성, 인물과 플롯, 서술 방식과 문체 등 작품의 문학성을 중심으로 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7차 초등

학교 1-4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작품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람직한 환타지 세계를 다룬 동화나 어린이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진실되게 다루고 있는 동화가 부족하며, 의인적 동화로 교훈을 전달하기에 급급한 작품이 많다는 평가를 하였다.

교과서가 교사의 교수 자료이면서 학생의 학습 자료인 만큼 교과서 제재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 본 선행 연구들은 몇 가지 점에 한계를 갖는다.

첫째, 연구 대상이 문학 제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어 교과서에는 문학적 제재 이외에도 어떤 글이라도 내용과 관계없이 교과서 제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문, 논설문, 기사문과 같은 실용문에 대해서도 제재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제재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제재 평가의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자마다 제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달라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제재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재의 난이도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과서 단원 학습 목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재 자체만 두고 선정 기준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재 선정은 작품 자체의 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학습 목표, 학습자 수준의 적절성, 학습 활동 용이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제재 평가는 한계가 있다. 넷째, 제재 선정 기준에서 학생에 대한 고려를 문헌적, 이론적으로만 접근하고 실증적인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제재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수준에의 적합성이다.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생활과 경험을 반영한 제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제재에 대한 반응과 인식, 태도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독성 공식(readability formula)이 제재 선정의 신뢰할 만한 준거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제재 선정 기준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읽기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학생들의 제재에 대한 선호도, 이해도, 주제 및 화제에 대한 공감의 정도, 독서 시간⁷⁾, 제재를 이해하는 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과 그 이유 등에 대한 조사, 관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교과서 사용에 대한 연구

교과서는 교실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교사의 교과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교과서를 두고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교과서 평가는 진공 상태에서가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교실 속에서 수행될 때 가능하다. 같은 교과서라도 교사가 어떻게 이용하는가,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교과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Marlow(2000)에서 교사의 교과서 사용 방식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교과서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자료'일 뿐,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교사에게 있으며, 질 높은 수업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Marlow에 의하면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더 좋은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논리로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고등 수준의 인지 개발에 학생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질 낮은 수업을 한다고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다. 동일한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가 토의·토론하기, 비교하기, 비판하기, 분석하기와 같은 고등 수준의 사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교과서를 줄줄 읽고 암기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

7) 제재를 읽는 데 소비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제재를 읽는 데 소비되는 시간은 교과서 학습 분량과 관련되기 때문에 측정될 필요가 있다.

다. 교과서는 중립적인 장치이고, 새로운 학습 기회를 위한 도약판을 제공할 수 있다. 중립적인 교과서를 학생들의 학습을 도약시키는 발판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교사의 교과서 사용 방식이다.

따라서 교사의 교과서 사용에 대한 연구는 교과서를 교수·학습의 과정 속에서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며, 교과서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사용을 연구하는 방법은 기술적(descriptive) 방법과 규정적(prescriptive) 방법이 있다. 기술적 방법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과서가 사용되는 현상을 묘사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교과서와 교사의 상호작용, 교과서와 학생의 상호작용, 교과서와 교사·학생의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적 방법은 교과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수·학습 모형이나 방법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규정적인 방법은 구체적인 수업지도안 형식으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수업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교과서 사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규정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정송전(1987), 황석연(1987), 김연수(1988), 조연순(1994), 이문석(1999)이 그 예이다. 김연수(1988)에서는 시 교육의 기본적 원리를 즐거움의 원리, 분석·종합의 원리, 핵심화의 원리, 내면화의 원리로 설정하고, 4차 중학교 교과서 시 단원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조연순(1994)에서도 5차 중학교 시, 소설 단원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고, 이문석(1999)에서도 고등학교 시 단원을 감상 위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는 효율적인 수업 원리를 정리하고, 그에 따라 교수·수업 모형을 구안하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예시함으로써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교실 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한 교수·학습 모형이나

지도 방법을 실제 적용하여 그것의 실행 가능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교사 수준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제안한 방법을 실제 투입하여 그 산출물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사용에 대한 기술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임난숙(2002)에서는 7차 중학교 1학년 국어과 교과서⁸⁾가 사용되는 실태를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중학교 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수업 방식, 지도 방법, 7차 교과서와 6차 교과서의 차이점, 7차 교과서의 문제점을 설문하였다. 7차 교과서가 6차 교과서와 크게 달라졌음에도 교사의 교과서 사용 방식과 수업 방식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7차 교과서가 6차 교과서보다 학생들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체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제재와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설문 결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에 의한 연구는 설문 응답자 표본 추출 방식과 응답자의 응답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응답자의 인식과 실제 수업 행동과의 괴리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설문 조사에 의한 실태 분석은 교과서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교과서 사용 실태를 보다 정밀하고 역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사용되는 수업 상황에 대한 관찰 연구가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김완(2000)은 주목할 만하다. 김완(2000)에서는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쓰기 교과서를 분석하고, 쓰기 교과서 활용을 중심으로 수준별 교수·학습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쓰기 교과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래서 교사가 속도 조절(pacing) 등의 방법을 이용하

8) 7차 중학교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 두 권으로 분책되었기 때문에,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면서 이 두 권의 책을 포괄하는 용어로 '국어과 교과서'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여 교과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러나 수업 관찰 결과 교사들은 교과서를 재구성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정혜승(2002)에서는 6차 중학교 3학년과 7차 중학교 2학년의 말하기·듣기 단원과 읽기 단원 수업을 관찰하고 교사가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식을 관찰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교사에 따라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식이 매우 달랐는데, 교과서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교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되 교과서 내용을 작은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는 교사, 교과서의 어구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설명하고 지도하는 교사 등 교사의 교과서관, 국어 교육관에 따라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들 교실 관찰 연구는 교과서가 사용되는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교과서 자체 및 교사의 교과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교육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교사의 교과서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의 교과서 사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교과서는 학생의 주요 학습 자료인 만큼 학생들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식, 교과서에 대한 인지적 이해 정도, 정의적 반응에 대한 관찰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VI.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대안적 연구는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교과서 개발 체제(system)에 대한 연구, 둘째, 보다 미시적으로 교과서 체제 및 단원 구성 방식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교과서 개발 체제에 대한 연구는 교과서 개발 주체에 대한 문제, 교과서 개발 체제 개선에 대한 문제로 초점이 모아져 왔다. 이문호(1994)

에서는 중학교 1종 도서를 중심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교과서 개발 주체에 대한 문제는 국어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할 것인가, 검인정 교과서로 할 것인가로 논의가 귀결된다.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인정 교과서 개발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교과서 체제 및 단원 구성 방식에 대한 제안적 연구는 국어과 교육이 이론적 성과물이 구체화된 것으로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박수자(1993), 김현수(1993), 천경록(1997), 이재승(1999), 정승우(2000), 이석재(2001), 김국태(2001), 노미라(2002)가 그 예이다. 박수자(1993)에서는 기능 중심의 읽기 교재를 분석·비판하고, 읽기 전략 학습 상황을 중시하고 초인지적 지식의 활용에 초점을 둔 전략 중심 읽기 교재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재승(1999)에서는 결과 중심 쓰기 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초인지 전략을 바탕으로 한 과정 중심 쓰기 교재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승우(2000)에서는 6차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를 비판하고, 상위인지적 읽기 학습 과정이 정교화된 읽기 교재 구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읽기 과정을 읽기 전·중·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상위인지 전략이 적용되는 단원 구성을 제안하였다. 김국태(2002)에서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이 결과를 간과하는 오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맥락 중심 쓰기 교육을 주장하면서, 책임 이양 수업 모형에 입각하여 '시범 쓰기-공유된 쓰기-상호작용 쓰기-안내된 쓰기-독자적 쓰기'의 단원 구성 방식을 제안하였다. 노미라(2002)는 매체 텍스트를 국어 교육적으로 수용하여 교재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국어과 교육에서 전략과 초인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축적되고 이를 교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노미라(2002)와 같이 매체 텍스트를 교재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현대 다매체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확대된 문식성을 향상시켜주는 데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재 개발 방

안이 이론적 수준의 탐색에서 그쳐 구체적인 단원을 개발하고, 그것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론적 탐구와 함께 실제 단원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성과 의미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천정록(1997)은 본격적인 교재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교재를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실험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글 자료가 정교하게 수정되지만, 그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으며, 수정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를 한 후, 문장의 길이 조정, 논리적 연결어, 논항 반복, 신·구 정보 일치로 수정 방안을 제한하여 그 효과성을 실험하였다. 이러한 실험 연구 성과가 축적된다면 교과서 제재를 수정하는 방식의 체계화, 정교화는 물론 교과서 기술 방식에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개발 체제와 관련하여 더 연구되어야 할 영역으로 학교급별 교과서의 연계 문제가 있다. 현행 개발 체제에 따르면 학교급별로 교과서 개발 기관이 다르다.⁹⁾ 개발 기관의 교과관, 교재관, 교수·학습관, 학습자관에 따라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개발 기관 사이의 상호 연계 및 소통 방안이 교과서 개발 체제 면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 개발 기관이 학교급별로 분리됨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난이도 조절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학교급은 다르지만 학생들의 발달 단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교과서의 학년간 차이, 학교급간 차이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9) 7차 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 교과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중학교 교과서는 고려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서울대학교에서 각기 개발되었다.

VII. 결론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교수·학습 자료라는 교재관이 확산되면서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교실 현장에서 교과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자료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국정 교과서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어 교과서의 영향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그 중요성과 교육에서의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교육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 교과서 연구의 범위를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뒤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국어 교과서 연구는 대체로 교과서 체제에 대한 연구, 교과서의 내용 분석 및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글 제재에 대한 연구, 교과서 사용에 대한 연구,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의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국어과 교육의 학문적 성숙과 함께 이론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서 제기된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 연구를 개발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실행의 패러다임 속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육과정은 물론 교육과정 자료로서 교과서에 대한 관심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에 놓여 있었지,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어떻게 작동하도록 실행할 것인지, 교과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들을 실행하고 사용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 교육과정이 실제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의 작용 구조를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김창원, 1994 : 19) 교육과정이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 투사되고 작동되는 구조를 밝혀서, 그것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정에 환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교과서 역시 그것이 사용되고 수업에서 작동되는 양상에 대한 파악과 문제 진단, 개정의 환류라는 실행 패러다임으로

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과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교육과정이 개정됨과 동시에 교과서 개정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교과서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음 교과서 개발에 급급해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연구의 초점과 연구 방법에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연구의 초점이 교과서 그 자체를 넘어서 교육과정과의 관계, 사용자와의 관계에 놓여져야 한다. 교과서 개발의 근거가 교육과정이므로, 교과서에 대한 제 논의는 교육과정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앞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를 외적인 동형성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 성격이라는 거시적 내용과 학년별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라는 미시적 내용을 교과서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반영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연구 방법 면에서도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교과서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치중하였다면, 장차의 연구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기술하고, 주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역동적인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과서가 교사 및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에 대한 관찰적 연구, 교과서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국어 교과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범주 이외에 교과서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교과서 국제 비교 연구, 실업계 및 장애·특수 학생¹⁰⁾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 개발에 관한 연구, 수준별 교과서 연구가 그것이다. 이들 연구는 양질의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시사점을 받기 위해서, 학습

10) 특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에는 부진(아) 교과서, 영재(아) 교과서를 예로 들 수 있다.

자 개인을 고려하는 보다 유의미한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 교과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과서 평가에 관련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양질의 교과서가 양질의 교육에 기여하리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 가정이 틀리지 않은 것이라면 교과서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에서 교과서 평가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창원(2000)에서 교재 평가를 교사와 학습자 수준에서 이미 만들어진 교과서를 교수·학습에 투입하기 위해 재조직하는 층위의 평가와 교과 전문가와 평가 전문가 수준에서 기존의 교과서를 개선하기 위한 층위의 평가로 구분한 바 있는데, 어떤 층위의 평가이든 국어 교과서에 대한 평가 및 그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¹¹⁾ 교사 수준의 현장 연구는 물론이고, 국어과 교육 전문가 수준에서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선택하고, 사용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교과서가 맞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¹²⁾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는 교사와 더불어 교육의 과정에서 핵심적 요인으로, 수준 높은 국어 교과서는 국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는 데 관건이 된다. 교과서 연구는 바로 양질의 국어 교과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가 국어 교과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안내하고 정립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 11) 과학과 교육의 경우 과학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양적인 평가 방법을 개발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김숙진(1995)과 김현정(2002)가 그 예로, 이들 연구에서는 과학 교과서 평가의 틀을 개발하고 이를 제 5, 6차 과학 교과서 평가에 적용하였다) 미국의 경우 특히 수학과 과학과 교육 분야에서 교과 전문가들은 수업 자료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준거를 개발하고, 지역 교육청과 학교는 질 높은 자료를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 : 29-30)
- 12) Tyson(2001)에서는 교재 선정 기준, 평가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교재가 맞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는 교재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Morrison, Ross & Kemp, 2001 : 153 재인용)

참고문헌

- 강남희(1998), 『국어 교과서 소설작품의 주제와 가치관 연구 제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권성화(1987),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설명문 구조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김국태(2002), 『맥락 중심 쓰기 교재 구성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김명숙(1991), 『국어과 교재의 아동극본에 관한 연구 : 현행 초등 계재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 김 미(1998), 『설화교육론 : 고등학교 설화교육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 김숙진(1995), 『교과서 선정을 위한 중등학교 과학 교과서 평가를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연수(1988), 『중학교 현대사 교육의 실태와 수업 모형』,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김 완(2000), 『수준별 교육과정에서의 쓰기 교수·학습 양상에 관한 참여 관찰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김원모(1987),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등재된 희곡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 김원수(1981), 『중학교 국어교재에 실린 설화 연구 : 상변군사 효녀 지은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 김인전(1989),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위인들의 잠재적 의미 : 전기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재우(1999),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단 분석 및 평가』,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 김창원(1994), 『시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원(2000), 『국어과 교수학습 자료Ⅱ』, 『KICE 연수 자료-제 7차

-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태숙(2000),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외형 체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김현수(1993), 『중등학교 국어교육에서의 언어지식영역 교재 개발 시론』,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김현정(2002), 『Romey의 교과서 평가 방법을 이용한 제 7차 교육과정 따른 중학교 6종 과학 교과서의 탐구적 성향 분석-에너지 영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효숙(2001),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삽화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 4, 5, 6학년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나경인(1999),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학습 제재 분석 : 제 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논문.
- 나재환(2000),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시 교재 분석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석사논문.
- 노명완(1992), 『교과서 체제 연구 :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교수 자료의 설계를 중심으로』, 교과서 체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 한국 2종 교과서 협회, 5-22쪽.
- 노미라(2002), 『매체 텍스트의 국어교육적 수용 방안 연구 : 매체 텍스트의 교재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박기호(1988),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독서교육 내용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 박미진(2002), 『창작 동화 작품의 초등국어 교과서 선정 기준 연구-작품의 문학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박성규(1997),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시 연구: 시적 표현 분석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석사논문.
- 박종혁(2000), 『중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소설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박진숙(1981),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디자인

- 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배동진(1995), 『국민학교 교과서 문장에 나타난 문제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서희선(1996),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 신현숙(2001), 『청각 장애 초등부 저학년 국어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일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 오병진(1989),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본 학교 교재의 특성 :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희곡교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우찬순(1997),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교재 연구 : 현행 5, 6학년 읽기 교과서 소설 교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유근원(1993), 『국민학교 문학교재 분석 연구 : 동화와 소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윤영희(1997),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분석』,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 위남준(2000),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의 인물형상화 양상에 관하여』, 순천대학교 석사논문.
- 이관규(1997, a),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1)」, 『한국어학』 6, 한국어학회.
- 이관규(1997, b),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상관성(2)」,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一菴金應模教授華甲紀念論文集)』, 서울 : 박이정.
- 이문석(1999), 『한국 현대사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열린 교육' 시 감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 이문호(199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 : 중학교 1종 도서를 중심으로』, 경의해

학교 석사논문.

- 이삼형(2001), 『목표 중심 체제 국어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제 4회 연구발표회 발표원고.
- 이석재(2001), 『활동 중심의 말하기·듣기의 교재 구성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이세영(2001), 『초등학교 국어(읽기) 교과서 이야기 단원의 주제 분석 : 6차 교육과정 3,4,5,6학년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석사논문.
- 이원섭(2001),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언어 영역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 이재승(1999), 『과정 중심의 쓰기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논문.
- 이정민(1998),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시 연구 : 변천과 지도법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석사논문.
- 이화용(1989),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의 상관관계-제 4·5차 교과과정과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임난숙(2002),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제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임덕연(2001), 『초등학교 국어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연구 : 원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 임문혁(1988),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시단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 문학교육의 방향과 작품 선정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임임자(1998),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시연구 : 변천과 지도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장순정(2000),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회곡 연구 : 회곡이 갖는 교육적 가치관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 전미라(1999), 『현대시의 내재적 분석 방법론 연구 : 중학교 국어 교과

- 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정승전(1987), 『현대시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인문계 고등학교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 정승우(2000), 『상위인지적 읽기 학습 과정의 정교화 및 교재화에 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석사논문.
- 정은미(1991), 『중학교 쓰기 단원의 문제점과 교수·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정인관(1988),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수용 제재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정종록(1999),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의 시점과 화자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논문.
- 정찬섭·권명광·노명완·전영표(1993), 『편집 체재와 글의 읽기 쉬움 : 교과서를 중심으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연구』, 박이정.
- 조연순(1994), 『문학교재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중학교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조영숙(1976),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시의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조재수(1986),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수필 작품 분석-통일성과 연결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 조하식(1990),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설명문의 실태 및 구조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조형주(2001), 『제 6차, 제 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삽입된 질문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진태경(2002),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연구 : 제 6차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주교육대학교 석사논문.
- 차일룡(1991), 『국어교과서 소재 시조의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천경록(1997), 『읽기 교재의 수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논문.
- 최영중(1988),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일러스트레이션의 연구』

- : 표현형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허정연(2002). 『중학교 생활 국어 교과서 문법 단원의 평가와 재구성』,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 홍승화(1994). 『우리나라 국민학교 교과서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 저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홍은표(1995). 『중학교 국어 교과과의 수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 황석연(1987).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학습문제」 활용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 Beck, I. L., McKeown, M. G. & Gromoll, E.W.(1989), "Learning from social studies texts", *Cognition and Instruction* 6(2).
- Boostrom, R.(2001), "Whither textbook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2) : 229-245.
- Calfee, R. C. & Chambliss, M.J.(1987), "The structural design features of large texts", *Educational psychologist* 22(3&4) : 357-378.
- Doyle, W. (1992), "Curriculum and Pedagogy", In Jackson, P.W.(Ed.), *Handbook of Research Curriculum*. N.Y. : Macmillan.
- Elliot, D. & Woodward, A.(1990), "Textbooks, curriculum, and school improvement", In D.Elliot & A.V(eds.), *Textbooks and 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89th Yearbook, Part 1,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NSSE.
- Freeman, D. J. et al. (1983), "Do Textbooks and tests define a national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Elementary School Journal* 83(5).

- Gall, M. D.(1981), *Handbook for Evaluating and Selecting Curriculum Materials*. Allyn and Bacon, Inc..
- Lockwood, A. T.(1992), "Whose knowledge do we teach?", *Focus in Change*(6) : 5-9. ED.404721.
- Marlow, E.(2000), "Textbooks in the Language Arts: Good, Neutral, or Bad?", ED442104.
- Marsh, C. J.(1992), *Key Concepts for Understanding Curriculum*. London : The Falmer Press.(박현주 역(1996).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 서울 : 교육과학사.)
- Morrison, G. R., Ross, S. M., & Kemp, J. E.(2001), *Designing effective instruction* 3rd (eds.). John Wiley & Sons, Inc.
- National Research Council(1999). *Designing Mathematics or science curriculum programs*. National Academy Press.
- Ravitch, D.(1985), *The Schools We Dederve : Reflections on the Educational Crisis of Our Time*. New York: Basic Books.
- Sosniak, L. A. & Perlman, C. L.(1990), "Secondary education by the book", *Curriculum Studies*, 22(5) : 427-443.
- Venezky(1992), "Textbooks in school and society", In P. W. Jackson(ed.), *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New York : Macmillan.
- Westbury, I.(1991), "Textbooks", In A. Lewy(ed.),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urriculum*. British Library Cataloguing in Publication Data.

〈초록〉

국어 교과서 연구의 현황과 반성

정혜승

전통적으로 교과서는 가장 중요한 교재로 인식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동일시하는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과서의 위치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과서가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에 비해 교과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어과의 경우 교과서와 관련된 단행본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교과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 연구의 범위를 1) 교과서 체제에 대한 연구, 2) 교과서의 내용 분석 및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3) 교과서 제재에 대한 연구, 4) 교과서 사용에 대한 연구, 5)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로 범주화하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국어 교육 학계에서 이루어져 온 교과서 연구의 흐름을 연구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교과서 관련 연구를 분석하면서 제기된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교과서 연구를 개발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실행의 패러다임 속에서 수행할 것,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도입할 것, 교과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할 것, 교과서 평가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교과서, 체제, 교과서 내용, 교육과정, 제재, 사용 방식, 개발 방향, 교과서 평가

<Abstract>

The stream and reflection of researching a Korean textbook

정혜성

Jeong Hye-seung

Traditionally, a textbook has been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teaching materials, and it can be said that a textbook occupies an absolute position in education when textbook-centered education that a textbook is identified with a curriculum is performed like Korea. Like this, the study on a textbook should be treated with weight to the extent that it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education.

It is, however, difficult to see that the study on a textbook has been so actively performed compared to the importance also in Korea like America, and concentrative research on a textbook is actually insufficient to the extent of the scarcity of a separate volume related to a textbook in the case of the department of the Korean language.

In this study, I have analyzed the flow of the study on a textbook which has been carried out in Korean education circles on the aspects of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study centered on theses by categorizing the scope of the study on a textbook into 1) the study on its system, 2) the analysis of its contents and the study on the relatedness between it and a curriculum, 3) the study on its text materials, 4) the study on its use, 5) the study on the

directions of developing it.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problem that I raised while analyzing the study related to a textbook, I have suggested that the study on it should be performed in the paradigm of executing it out of the paradigm of developing it, that positive methods of study should be introduced, that the extension of the study should be expanded, and that the study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a textbook should be performed.

【key words】 textbook, system, contents of textbook, curriculum, text materials, using of textbook, the directions of developing textbook, evaluation of textbook